

물량 줄었지만 수입금액은 증가

환율상승,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금융불안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하락은 수입한약재 가격의 원가 상승을 유발, 수입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는 소비심리의 위축을 야기시킴으로써 국내 생약 업체도 수요감소로 인한 재고량 누적 그에따른 시세하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IMF시대에 생약업체가 살아남는 길은 수출을 활성화하는 길뿐이다.

그렇다면 생약수출증대를 위한 국내외적 환경은 어떤가.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의 여건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듯 하나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과는 달리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주력시장의 금융불안요인이 경기의 불투명함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어 이같은 금융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는한 경기

◇한약재수입량 변화추이

품목	11월		12월	
	금액 (단위:천)	수량 (단위:톤)	금액 (단위:천)	수량 (단위:톤)
갈근	100	218	84	187
감초	306	192	468	272
곽향	17	16	2	2
길경	173	84	70	35
녹각	363	32	165	15
반하	57	14	166	39
백두구	217	56	28	5
복령	125	106	229	169
산약	52	39	17	19
산조인	57	24	88	38
상박피	16	21	6	12
에엽	28	79	17	49
오가피	15	13	1	0.9
오매	9	6	2	2
용안육	897	242	224	65
육종용	35	9	55	12
음양곽	10	18	19	29
지모	9	5	54	29
진피	2	8	12	29
차전자	1	1	12	3
파극	34	11	4	1
행인	101	37	123	49
형개	9	18	4	5
홍화	133	27	178	36
황백	10	12	4	5
회향	42	37	6	4
후박	4	4	37	45
기타	4,169	1,684	16,127	1,531
총계	7,005	3,027	18,215	2,702

'97년 주요한약재 수입실적

품명	금액(천불)	수량(톤)	품명	금액(천불)	수량(톤)
갈근	736	1,439	산약	192	167
감초	4,301	2,347	시호	951	166
결명자	97	246	음양곽	123	183
목단	422	110	지모	64	35
녹용	23,491	120	지황	1,977	1,911
녹각	2,641	240	창출	1,083	830
반하	1,809	378	차전자	222	177
백출	3,362	997	패모	74	40
복령	1,648	1,276	곽향	303	320
오가피	250	157	황정	2,050	1,469
우술	387	277	후박	131	208

※의약품수출입협회 통계자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업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대국 바이어들의 수출단가 재조정 요구 및 납기지연 등의 조건으로 오히려 수출둔화 현상마저 초래해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

특히 일본등 주요 한약재 소비국의 자국 통화도 달러화에 대해 약세로 돌아섬으로써 국내 환율 상승효과를 상쇄시키는 등 수출여건이 생각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환율상승으로 수입한약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고 수입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MF시대적 상황이 국내

생약재배 농가들에게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국산약재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의약품수출입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IMF구제금융신청 이전인 97년 11월에 비해 구제금융신청이후인 97년 12월의 한약재수입량은 2천7백2t으로 3백25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수출입협회 정연국 차장은 『98년 1월 수입량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97년 11·12월 두달간의 한약재 수입량은 5천7백30여t으로 96년 같은시기의 수입량인 9천3백32t보다 무려 3천6백1t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입금액은 97년 11·12월 두달간의 수입액이 2천5백22만여 달러로 96년 같은시기 1천9백62만6천달러 보다 무려 5백59만4천달러나 증가했다. 또 97년 수입량은 11월 보다 3백25t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은 1천8백21만달러로 11월 7백만달러 보다 무려 1천1백21만달러 증가함으로써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약재 가격의 오른세를 반영하고 있다.

'96, '97 한약재 수입실적대비

	금액(천\$)	수량(톤)
96년 11.12월	19,626	9,311
97년 11.12월	25,221	5,730
96년 대비 97년 수입실적	△5,595	▽3,601

한약재의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길경, 갈근, 곽향, 녹각, 백두구, 산약, 애엽, 용안육, 파극, 형개, 회향, 황백 등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전체적인 수입량 감소추세 속에서도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들도 있다. 진피, 차전자, 토사자, 감초, 지모, 홍화, 행인, 산조인, 복령, 반하, 후박 등은 국내 생산기반이 없거나 물량이 귀해 수입이 달리는 약재들로 이들 몇 개 품목들의 수입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한약재의 수입물량이 이제부터는 불요불급한 품목만을 수집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전체 수입량은 감소가 예상되나 이들 불요불급한 품목들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전체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율불안정이 지속되는 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들 약재를 들여오기 위해서 더많은 달러의 낭비는 불가피한 상황. 따라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이룰 수 없이 수입 해와야겠지만 생산이 가능하고 경쟁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은 발굴, 장기적 안목에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 과거에 수출까지 해왔던 품목들은 환율인상을 계기로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수출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수출업체 관계자가 말하는

수출가능품목은 “이런것”

국내산 생약은 환율상승에 힘입어 수출경쟁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듯 보인다. 또 수출업체들에서도 주요수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량의 부족과 부적합한 품질로 인하여 적기에 필요한 양의 생약재를 수출하는데 사실상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지금의 IMF 상황을 계기로 국내 생약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생산농민들의 자세와 노력이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임철우 <극동약업>

예를들면 국내산 생약은 재배지역 생산시기 및 방법에 따라 생약성분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질의 종자를 개량하고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재배적지에서, 생산시기는 과학적으로 비교시험한 수확적기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말해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고 언제 수확하느냐가 생약재의 고품질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국내 생약중에 현재 재배지역에 따라 성분상 차이가 있는 품목중 향부지는 금강유역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필요한 성분을 가장 적절히 함유하고 있어 수출품으로 적합하다.

또 생산시기에 따라 성분차이가 있는 품목으로 지모를 들 수 있다. 지모생산시기로 가장 적합한 때는 8월말경. 이 시기에 수확된 지모에는 성분상 필요한 정유를 함유하고 있으나 보통 국내에서 11월 이후에 생산된 지모에는 정유가 거의 없다.

적은양이나마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산수유, (일)당귀, (일)천궁, 백지, 산약, 갈근, 길경, 천초등 다수의 국산생약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은 적합한 품질과 생산수량의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원가의 상승은 국내 생약의 가격경쟁력도 다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재배적지를 선정 지역별 특화 재배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존의 비과학적인 생산관행에서 탈피, 생약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고유성분을 최대한 함유한 생약의 고품질화에 보다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약재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와 국내 생약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고 국내생산기반조성으로 수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